[AY-01] IYA2009 : 지구촌 시민을 위한 축제, 국민 모두의 축제

문홍규[1], 이경숙B[1], 김지혜B[1], 현성경[1], 채종철[2], 이희원[3], 이명현[4], 이경숙A[1], 이서구[1], 양홍진[1], 이동주[1], 홍대길[5], 이강환[6], 김천휘[7], 민영철[1], 강영운[3], 양종만[8], 박석재[1], 문종기[1], 김지혜A[1], 이용정[1], 안해도[1], 신정선[1]
[1]한국천문연구원, [2]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, [3]세종대학교 천문우주학과, [4]연세대학교 천문대, [5]싸이유, [6]국립과천과학관, [7]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, [8]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

지난 2008년 7월, 2009 세계 천문의 해(IYA2009, International Year of Astronomy) 한국조직위원회(이하 '조직위')가 공식출범했으며, 9월 사무국 설치 이후, 한 달 뒤인 10월초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. '2009 세계 천문의 해' 국내 캠페인은 교육, 문화, 행사, 미디어, 학술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으며, 교육분과는 '꿈과 우주', 문화분과는 '우주의 신비', 행사분과는 '우주와 나', 미디어 분과는 '미디어와 우주', 학술분과는 '베일을 벗는 우주'를 주제로, 일반시민들이 우주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이벤트를 다채롭게 펼치고 있다. 조직위는 1월 1일, 부산 해운대에서 일반시민 4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해오름 행사와 국제태양관측 캠페인을 벌였으며, 1월 15일,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2009 세계 천문의 해 공식 선포식을 개최했다. 이 날, 2009 세계 천문의 해 기념우표가 발행되었고, 같은 시간, 인솔교수 1명과 남녀 학생대표 2명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국제 개막식에 파견했다. 이와 함께 조직위 공식 웹 진인 '이야진'(www.astronomy2009.kr)을 공개했다. 조직위에서는 1월 초부터 '지구의 밤'(The World at Night) 천체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, 소외지역 방문 프로그램, 중소도시 도서관 방문 프로그램, 병원 방문 프로그램들을 기획, 진행하고 있다. 이 발표를 통해서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개한다.

[AY-02] IYA2009: 교육/학술 분과 현황과 계획

채종철[1], 이희원[2], 김천휘[3], 민영철[4], 문홍규[4,5], 이경숙B[5], 김지혜B[5], 현성경[5], 강영운[2], 양종만[6], 박석재[4]
[1]서울대학교, [2]세종대학교, [3]충북대학교, [4]한국천문연구원, [5]세계천문의해 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, [6]이화여자대학교

교육 분과는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에게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, 주로 대중적인 글쓰기, 강연, 인터넷,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. 주요 행사에는 1월 1일에 부산 해운대에서 이루어진 <새해 해오름 행사>, 7월 22일에 있을 <일식 관측 행사>, 어린이가 참여하는 <스케치북에 담는 우주>가 있다. 공식 웹사이트에 <갈릴레오 갈릴레이>, <외계 행성 사냥꾼>와 같은 내용물을 제공할 예정이며, 이를 포함하는 <천문학 지식 사전>을 준비하고 있다. 중고등학생이 <교실에서 천문학자를 만나>는 강연이 수 십 회 있으며, 여성 천문학자들이 강연하는 프로그램인 <그녀는 천문학자>가 있다. 이 외에도 행사 분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에 대개 강연이 따라 붙게 된다. 천문학자들이 개별적으로 일간지 또는 과학 동아 등의 매거진에 글을 싣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, 이와 더불어 수 십 명의 천문학자가 제공하는 글로 이루어지는 <소년한국일보 천문 기사>연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.

학술 분과는 세계 천문의 해를 빛내기 위한 <한국천문학회와 한국우주과학회의 공동 봄 학술발표대회>를 추진하였으며, 세계 최초로 망원경을 통하여 밤하늘을 관찰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한국과학사학회와 공동 기획 추진하고 있다. 더불어 <유엔 기초우주 과학 워크샵>을 지원하고 있다